



이진한, <Falling 봄의 끝>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 줘!

지금 이 순간, OTT

일상의 활력, 공감 콘텐츠 추천

이수 튜브

지구촌 주민들의 엄지척 세계 요리

이수 테이블

꽃보다 반갑고 간장보다 짙한 맛, 꽃게와 간장게장

스페셜 리포트

향기 세계와 AI 기술

ISU PLACE

이진한 작가 개인전 II <Hi, Bye(안녕, 안녕)>

CONTENTS



04 Focus & News

08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12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 줘!

이강진 사원((주)이수 브랜드전략팀)

장재훈 사원(이수건설 플랜트기술팀)

김현경 사원(이수엑사캠 국내영업팀)

16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강혜진 사원(이수엑사캠 글로벌영업팀)

양윤정 사원(이수화학 재경팀)

유현상 사원((주)이수 HR팀)



20 지금 이 순간, OTT

일상의 활력, 공감 콘텐츠 추천

이민우 과장((주)이수 HR팀)

이진 사원(이수시스템 HR서비스팀)

24 라떼는 말이야

이수그룹의 역사가 된 추억의 사진과 사연들

김정희 과장((주)이수 브랜드전략팀)

28 이수튜브

유튜브의 바다에서 반짝반짝 유람하기

지구촌 주민들의 엄지척 세계 요리

34 이수 테이블

스토리쉐프가 차려내는 식탁

꽃계와 간장계장



40 스페셜 리포트

이수인의 심폐 확장 이슈

향기 세계와 시 기술

48 ISU PLACE

이진한 작가 개인전 II

53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컬러링 응모작 소개

54 컬러링 테라피 및 엽서

COVER STORY

이진한 작가의 작품 <Falling(봄의 끝)>

벚꽃을 모티브로 출발해서 다채로운 봄의 풍경들로

확장되는 <Hi, Bye(안녕, 안녕)> 전이

7월 7일까지 스페이스 이수에서 개최된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3년 봄호 통권 112호

발행일 2023년 4월 13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현중 02-590-6819

사보기자 이수화학(김찬화·신기연) 이수페타시스(이준

경·한수진) 이수건설(한수진) 이수시스템(서

준혁)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엠지스(양

예슬) 이수엑사캠(박성호)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LEE & LEE work shop 기획실장 이신우,

디자이너 유선영

인쇄 LEE & LEE work shop

※이수그룹 사보는 친환경 FSC인증 펄프로 만든 용지를

사용해 제작합니다.

FSC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회가 만든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됩니다.

(주)이수

'SSG랜더스 야구단'
2년 연속 스폰서십



이수그룹이 스포츠마케팅 자산 확보의 일환으로 국내 프로야구 'SSG랜더스 야구단' 후원 에 나섰다. 이수그룹은 흥경기 개막일인 4월 1일부터 총 수용인원 23,000명의 홈구장 인천 SSG랜더스 필드 본부석, 더그아웃, 관중석 등에 그룹 브랜드를 노출하게 된다. SSG랜더스는 2022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한 신흥 명문 구단으로, 이번 스폰서십을 통해 이수그룹은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 대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화학

전남도농업기술원과
흑하랑 생산 판매
MOU 체결



이수화학은 지난 3월 전남도농업기술원과 <흑하랑> 상추의 호주 내 생산/판매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흑하랑' 상추는 2015년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기능성 품종으로 일반 상추 대비 숙면을 유도하는 락투신 성분이 124배 많아 천연 불면증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수화학은 앞으로도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작물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수건설

이수건설,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과
MOU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외 발전사업 및 폐기물에너지 발전사업(신재생에너지 포함)과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수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플랜트 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파트너사가 보유한 친환경 기술 기반의 발전 및 환경 부문으로의 신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수건설 제민호 대표이사는 "신규 사업 창출과 수익모델의 공동 발굴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시스템

사무실 통합 이전으로
업무 효율 제고



이수시스템은 지난 2월 6일 전체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덕명빌딩(서초구 사평대로 60)으로 통합하고 이전을 완료하였다. 새로 이전한 건물에서는 4층부터 7층까지 4개 층을 사용하여 부족했던 회의공간 및 휴게공간을 확보하였고, 고정좌석제와 자율좌석제를 적절히 혼합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업무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사무실 통합 이전으로 물리적 거리에 의한 단절을 해소함으로써 직원 간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창업투자

이병헌 감독의
코미디 영화 <드림> 개봉



이수창업투자가 올봄 극장가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영화 <드림>을 소개한다. '한국영화 관산업협회와 멀티플렉스 3社(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침체된 한국 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한 4월 개봉 한국 영화 3편 중 하나이다. 역대 박스오피스 2위 <극한직업>으로 대한민국 코미디 영화 흥행 신기록을 달성한 이병헌 감독의 신작으로 2010년 대한민국이 첫 출전한 홈리스 월드컵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이다. 이병헌 감독의 코미디 영화 연출력과 매 출연작에서 인생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대세 배우 박서준, 아이유의 첫 조합으로 뜨거운 기대를 모은다.

이수애플지스

면역항암제 옵디보,
러시아 알팜사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수애플지스는 면역항암 치료제 옵디보(Opdivo)의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ISU106'을 러시아 제약사 알팜(R-PHARM)사로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계약금 및 사업 진행 경로에 따른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고, 상업화 이후 매출액에 연계된 로열티를 지급받는다. 또한 알팜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개발, 등록, 제조 및 제품화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옵디보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치료제로 2021년 기준, 약 8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면역관문억제를 활용한 항암치료제 시장에서 키트루다(Keytrud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허 만료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수엑사캠

15 th
ICIS Asian Base Oils and
Lubricants Conference
참석



이수엑사캠은 지난 3월 15 ~ 17일까지 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CIS Asian Base Oils and Lubricants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아시아 Base Oil 및 Lubricants와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아시아 시장의 주요 변화와 당면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변화하는 Base Oil 및 Lubricants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발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콘퍼런스 참석을 통해 업계의 시황 분석과 더불어 향후 업계의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수AMC

한국전자무역센터
업무시설 종합시설관리
수주



이수AMC는 지난 1월 판교 한국전자무역센터 업무시설 종합시설관리 계약자로 선정되었다. 이 시설의 발주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3층~지상 9층, 1개동 연면적 5,532.4평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금번 프로젝트는 당사가 공개입찰 사업제안을 통한 최초 수주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있어 푸근합니다.

이 코너는 이수라는 큰 울타리 안에 동지를 튼 이수 가족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어슷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며 등 다독여 함께 하는
푸근한 동행의 통로에서 마주하는 이들과 손 내밀고 그 손,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Q

저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스타일인데요. 일 잘하시는 차장님만의 업무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지원 사원
(이수시스템 HR서비스팀)

A

안태성 차장
(주)이수 오픈이노베이션팀)



이지원 사원

업무가 많아지고 쌓일 때면 제 계획이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차장님께서도 그럴 때가 있으셨나요?

안태성 차장



하하. 저 역시 지원님과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저도 업무를 할 때, 머릿속에 저만의 생각과 논리가 정리되어야 일을 시작하는 타입이었어요. 성격이 그러다 보니, 분석을 위해 많은 숫자와 정보를 찾게 되고 실제 보고서 작업을 시작하기까지 워밍업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미처 일을 끝내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업무가 밀려오면 부담감이 커지면서 스트레스 받는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지원 사원

그렇다면 특별한 노력이나 어떤 해법을 찾으셨나요?

안태성 차장



제 업무 특성상 보고서 작성을 예로 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업무 리드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정보 탐색을 최대한 줄이고 완벽하진 않지만 논리적 가설을 빠르게 세우면서 잠정적 결론을 낸 채로 보고서 프레임을 잡는데 집중합니다.



이지원 사원

아하,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탐색하기보다는 먼저 큰 틀을 잡아 보고서 업무를 착수하신 거군요.

안태성 차장



그런 셈이죠. 그리고 논리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찾아서 근거를 뒷받침하죠. 만약 이 과정에서 정보와 데이터가 부합되지 않는다면, 유연하게 스토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서만 헤매던 업무가, 생각보다 빨리 완료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지원 사원

사원 직급에게 해주시고 싶은 추가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안태성 차장



“시작이 반이다”처럼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생각을 글로 빨리 적어 보길 권합니다.

Q

엔데믹 시대가 끝나가는데
올해 휴가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최대한 과장
(이수페타시스 재경팀)

A

박인성 사원
(이수건설 아파트팀-CO2)



최대한 과장

2020년부터 다들 심리적 감금상태에 가깝게 코로나 구간을 보냈는데요. 올해만큼 많이 자유로워진 분위기라 휴가 계획도 예년과는 많이 다르겠네요. 휴가 계획은 어떠세요?

박인성 사원



네, 저는 이번 여름휴가로 미국 LA 여행을 구상 중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로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국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풀려서 그런지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더라고요. 전 현재 가족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미국 여행으로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과장

그럼 휴가 기간 내내 가족들과 함께 지내실 계획인가요?

박인성 사원



LA부터 시작해서 주변 지역을 돌아다녀 볼 예정인데 아직 여행 계획 자체가 백지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과장

여행 계획 잡으시면서 특별히 실행하고 싶은 게 별도로 있나요?

박인성 사원



기회가 된다면 친했던 미국인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기도 하네요. 오랫동안 못 보다 보니 연락이 끊기기도 해서 아쉬움이 크거든요.



최대한 과장

여행은 하는 동안 보다 계획하는 시간이 더 설레고 즐겁다고들 하던데요. 특별히 준비하거나 미리 해야 할 일도 있나요?

박인성 사원



아직은 없는데요.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즐거울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회화 연습도 열심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Q

팀 내 역할이 커지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대리님은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푸시는 지 궁금해요.

박희은 사원
(이수화학 인사파트)

A

정경엽 대리
(이수건설 외주팀)



박희은 사원

회사 업무가 늘 부담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일을 접할 때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경엽 대리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는 에어팟을 챙겨서 무조건 걸어서 나갑니다. 이상하게도 저녁 공기에 온전히 혼자서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껴요.



박희은 사원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어떤 음악을 듣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경엽 대리



맞아요. 전 신나는 노래가 아닌 아주 조용한 노래를 듣는 편이죠!



박희은 사원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곡을 즐겨 들으시거나 아끼는 곡이 있나요?

정경엽 대리



제가 가장 아끼는 플레이리스트는 류이치 사카모토 Merry Christmas Mr. Lawrence입니다.



박희은 사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요. 혹시 가볼 만한 '봄 여행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경엽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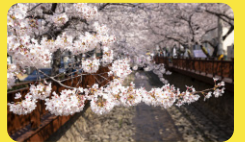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첫 번째 장소는 경주입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지만 인상 깊게 기억나는 곳은 경주 오름이에요. 해가 저무는 시간에 산책하시고 황리단길에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즐기신다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두 번째 장소는 군항제로도 유명한 진해입니다. 코로나로 군항제가 중단됐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열린다고 해요. 인파가 몰리는 축제 기간보다는 한주 떨어진 기간에 가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3~4월 벚꽃이 떨어지는 시기에 눈처럼 쏟아져 내리는 벚꽃길을 걸으며 폐부 깊숙이 남쪽 공기를 마시고 온다면 한동안 스트레스는 거뜬할 것 같습니다.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음악 공유해 줘!

음악을 듣는다는 건
 다른 수많은 취미와 구별되며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직접적이다.
 한 곡의 음악으로 나에게 오는 위로와 고무, 때론 먹먹한 감동으로
 심신에 안마를 받는 듯 그 저릿한 순간...
 우리는 음악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큰 신세를 진 바 있어
 다른 누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기도 한다.
 이 코너는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
 간접경험도 진하디 진하다.



힘들었던 발걸음이 빠밤 빠밤 뽐뽐~ 파워워킹으로

이강진 사원 | (주)이수 브랜드전략팀

입사한 지 3개월! 회사 가는 발걸음이 꽤 가벼워진 걸 보니 적응을 잘하고 있나 봅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제가 취준생이던 시절, 라디오를 들으면서 밤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됐어요. "Brrram 빠밤 빠밤 뽐뽐~" 강렬하고 경쾌한 도입부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빠른 비트와 신나는 사운드에 매료돼 가사도 유심히 들어봤죠. "I'm beautiful ~ 내 삶의 모든 외침이 곧 예술!". 자기에 넘치는 가사가 참 당돌하고 매력적이었어요. 터덜터덜 힘들었던 발걸음은 금세 '파워워킹'으로 바뀌었고,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기분이 처지거나 피곤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활력을 되찾곤 합니다.

comment

이 노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요. 화자는 세상이 짜 놓은 프레임에 자신을 끼워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란 듯이' 살겠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또,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되겠다고 외치기도 하죠. 밝은 멜로디에 이런 당찬 가사가 없어지니까 노래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Beautiful Beautiful

온앤오프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 Beggins'**
Måneskin(모네스킨)
- 가을목이**
소란
-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 캠퍼스 커플 (With 옥상달빛)**
페퍼톤스
- Etude op25 No.8 "Sixths(6도)"**
쇼팽
- 라일락**
아이유

불어와
정동원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 Hype Boy
뉴진스
- 걸어 본다
B1A4
- 혼자 있다고 혼자라고
정동원
- 안녕을
엠씨더맥스

공허할 때 외로울 때 ... 촉촉한 발라드로 행복하자고~

장재훈 사원 | 이수건설 플랜트기술팀

대학생활을 마치고 ROTC로 임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교로서의 꿈을 못 이루고 전역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새로운 길을 정하고 올해 1월에 입사하여 사회인으로서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성인이 되고 자취와 숙소 생활을 하게 되면서 특히 발라드를 자주 들었는데 이 곡은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생활하다 보면 공허할 때나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슬픈 발라드를 듣다 보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음악을 들으며 샤워를 하곤 하는데 기분에 따라서 발라드나 리듬감 있는 음악들을 골라 듣곤 합니다. 참고로 전 노래를 들으면서 샤워시간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요.

comment

이 노래는 '행복하자고 말했잖아...'라고 시작되는 말하는 듯한 도입부가 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체적인 가사들이 비유를 통한 창의적인 표현들이 많고, 이를 정동원 가수만의 슬픈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된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애시절 설렘을 소환하는 추억 돋는 비타민 음악

김현경 사원 | 이수엑사캠 국내영업팀

따뜻한 봄이 온 걸 피부로 느끼는 요즘, 하루하루 설레는 맘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드라이브하는 것이 취미라, 요즘 창문을 열고 도로를 달리는 것이 참 좋네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설레는 노래를 요즘 주로 듣고 있습니다. 이 곡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노래입니다. 힘든 출퇴근길이나, 꽉 막힌 도로에서나 플레이 리스트 중, 가장 맘을 들뜨게 하는 노래예요. 사실 제목이 '목요일 밤'이지만 어떤 요일에 들어도 좋은 노래입니다. 특히, 지금 아내와 연애할 시절 가끔 퇴근길에 아내를 데리러 갈 때면 항상 이 노래를 듣고는 했어요. 그때 차 안에서 이 노래를 같이 듣고 부르던 설렘과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comment

첫 소절인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을 오늘' 이란 가사가 참 좋아요. 누구나 공감 가는 소절이잖아요? 금요일을 앞두고 한주 중 가장 피곤한 날 퇴근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본다는 것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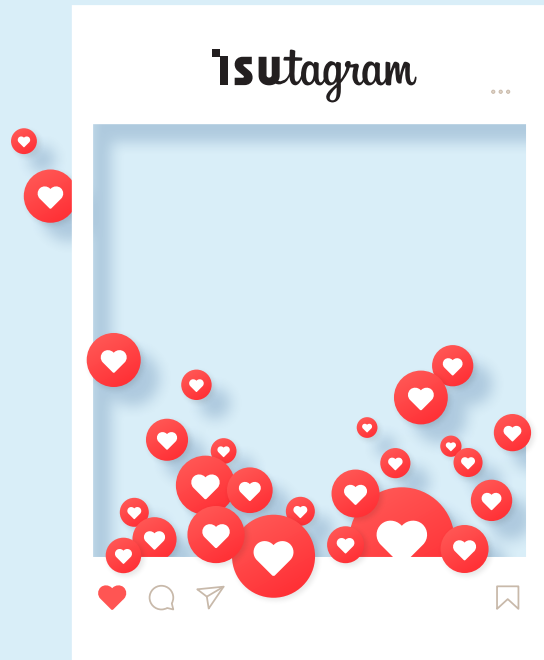
목요일 밤
어반자카파




나만의 추천 명곡 리스트

- Blueming
아이유
- I Need You
허각, 지아
- 불바람
이문세(ft.나얼)
- I LOVE U
WINNER

이수 가족 한 개인의 빛나는 순간 주변 모두가 함께 환하다!



이수스타그램은 그동안 호응을 보여온 이수인의 소통 코너이다.
 계절감 담긴 사진이나 시사성 있는 이미지, 공유하고 싶은 개인적 관심사 등
 혼자 간직하기 아까운 삶의 순간들을 넉넉히 공개하는 이수 가족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이수스타그램은 스토리가 담긴 이미지를 공유하며
 이수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내적 보물과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한다.
 내가 갖지 못한 순간, 혹은 내게 없는 추억이라도
 이수 가족 내 누구의 것이든 나의 것으로 환하게 맞아들이는
 선한 교류의 장이다.


강혜진 사원(이수엑사캠 글로벌영업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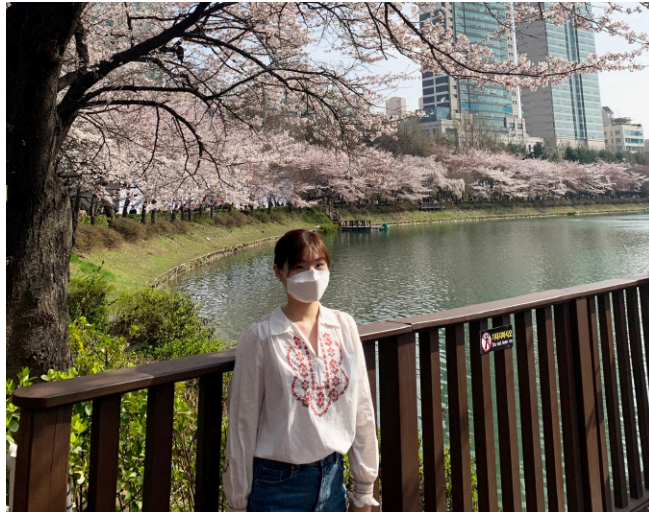
느린 아날로그 감성 필름 카메라의 매력

때론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제 취미 중 한 가지는 느린 아날로그 감성을 가득 담은 필름 카메라입니다. 급하게 셔터를 눌러 찍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도 좋지만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면 뷰포인트에 가득 찬 풍경을 누릴 수 있고,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 조심스레 셔터를 눌러 '찰칵'하는 투박한 소리와 함께 찍는 맛이 있어요! 서울에 몇 곳 남아있지 않은 현상소를 찾아 사진이 현상되어 나오기까지 설레고 기대하는 그 시간조차도 소중한답니다. 게다가 현상소마다 사용하는 스캐너가 다르기 때문에 사진에 개인의 취향을 담을 수 있다는 점도 꽤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나요? 날씨가 따뜻한 요즘, 산책과 함께 카메라로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보세요 :)

#취미추천 #필름카메라 #감성 #입문용필카추천



양윤정 사원(이수화학 재경팀)



花無十日紅... 그 순간만의 나를 남기기

추운 겨울이 끝나고 어느새 20도가 훌쩍 넘는 4월이 되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 곳곳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벌써 만개했네요! 2023년은 유독 더 따뜻한 것 같은데요... 저는 매년 3~6월까지 벚꽃을 비롯해 장미, 철쭉, 튜립, 수국 등 꽃을 보러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쁘게 차려 입고 가서 사진까지 찍어온다면 눈에 아름다운 풍경도 담고, 오직 그날 그 시간에만 남길 수 있는 하나뿐인 추억도 만들고, 금상첨화겠지요?

올해는 코로나 이후 마스크 해제가 본격화되어 전국 꽃 명소에 사람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황금 같은 날씨에 예쁜 꽃이 반기는 곳에 한번 들르셔서 소중한 추억 한 장 남겨오시는 건 어떨까요?

이수 가족 여러분들 마음에 봄날 같은 날들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무십일홍 #만개 #봄날 #추억



유현상 사원((주)이수 HR팀)



요즘은 실내에서도 꽃놀이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봄이 왔네요. 봄에는 물론 야외에서 즐기는 벚꽃놀이와 피크닉이 빠질 수 없지만 꽃가루와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서 즐기는 활동들도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강릉 아르떼 뮤지엄에서 형형색색의 빛들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풍경을 구경하고 왔어요. 이렇게 실제 보다 더 실제 같은 꽃들이 흩날리는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가만히 서서 멍하니 조명들이 만들어내는 멋진 광경을 넋 놓고 구경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봄의 따뜻한 날씨를 즐겨보셨다면 이렇게 색다른 실내 전시 공간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감싸네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에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지금 이 순간, OTT
(Over-the-top)

그대는 내면 부자 <문화 예술러> 일상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윤기

이번 봄호부터 신규 오픈한 이 코너는
그룹 사내 사우들 마음의 창문을 슬며시 열어보는
감성적 교류의 장입니다.

회사 내에서는 열심히 일한 그대,
회사 밖에서는 열렬히 놀아본 흔적이지 제안이고 부추김이랄까...
자알~ 놀아서 그 에너지 요긴하게 쓰일
배터리 충전의 공간입니다.

이수그룹 내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OTT를 통한 드라마 및 영화 감상기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민우 과장 (주)이수 HR팀)

평소 취미생활로 헬스와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와이프도 같은 취미라 주위에서 보기 드물게 골프생활을 존중 받는 저는 '복 많은 남편'입니다.



NETFLIX 풀 스윙

2023 | [12+] | 미국 TV프로그램

PGA 프로골프 선수의 삶을 다룬 에피소드별 8부작 다큐멘터리

'풀 스윙'은 PGA 프로 골퍼선수의 히로애락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로리 맥길로이, 조던 스피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드클래스 선수부터 루키 선수까지 다양한 선수들이 출연합니다. 대회가 펼쳐지는 정밀 뛰어난 코스 컨디션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에피소드별로 조던 스피스와 저스틴 토마스의 우정 스토리, 스코티 셰플러가 세계 랭킹 1위까지 오르는 과정, 리브 골프라는 새로운 리그의 등장으로 인해 선수들이 돈 vs 전통을 선택하는 심리 등을 다양하게 그리며 프로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지 선수들의 스킬, 피지컬뿐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까지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TV에서 보던 선수들은 항상 강해 보이고, 침착하고 감정의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 누구나 다 좌절과 고난, 불안을 견디고 이겨냈던 거구나, 특이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럼에도 프로의 세계는 정말 냉정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들게 되었습니다.

추가 추천 콘텐츠



NETFLIX 더 쇼트 게임

2013 | [12+] | 미국 영화

'더 쇼트 게임'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같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작지만 위대한 챔피언'들의 이야기입니다. 125년 역사를 지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정상급 '키즈' 골프 대회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세계 각국의 '8세 이하'의 8명의 선수와 부모의 시선을 통해 대회를 보여줍니다. 같은 토레이지만 각기 다른 국가와 인종,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과 경제 여건 등 현실적인 고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감동과 교훈이 있는 '더 쇼트 게임', 이번 주말에 어떠신가요?



이진 사원 (이수시스템 HR서비스팀)

입사 3개월 차, 드디어 수습 기간 마감과 동시에 함께 시작된 서울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오래 해오던 보디빌딩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업무에도 차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NETFLIX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

2022 | [All] | 미국 가족영화

분주함과 결핍에 익숙해진 일상 속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담은 은유적인 메시지

익히 알려진 동화 피노키오를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 속에 친근하게 남아 있던 '피노키오'란 캐릭터를 감독의 연출로 때로는 자극적이게, 때로는 몽환적이게 표현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피노키오'는 분주함과 결핍에 익숙해진 일상을 보내며 한구석으로 미뤄두었던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은유적인 메시지를 통해 꺼내 줍니다. 특히, 전체 줄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피노키오를 따라가면서도 배경 설정을 1916년 전쟁 중인 이탈리아로 설정함으로써 작품이 가진 교훈을 극대화했고, 이러한 설정은 감독의 연출과 맞물려 시청각적 즐거움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처음엔 익숙한 소재와 연출의 미학적 평판으로 인해 선택했으나, 작품이 보여주는 웅장하고 자극적인 모험 장면에 매료되기도 하며 전쟁, 술, 자본주의와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에 굴하지 않는 피노키오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인 저는 작품 속 피노키오가 행복해지는 결말에 작은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가 추천 콘텐츠



Wavve 고독한 미식가

2018 | [12+] | 일본시리즈

'고독한 미식가'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일본의 드라마입니다. 직장인인 '이노 가시라 고로'는 바쁜 일상에서 작은 치유 행위로 자신만의 미식 행위를 즐깁니다. 주관적인 기준과 그날의 기분을 토대로 메뉴를 정하며, 혼자서 조용히 고즈넉한 식사를 즐기는 행위를 보며, 현대인인 우리 역시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무심코 씹고 삼키던 일상적인 음식들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이미 아는 '그 맛'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알기 때문에 위험한 그 맛! '고로의 미식 장면'을 보며 이번 주말 외식 메뉴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나고 나면 더 선명해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인사는 그 조직과 사회, 나아가 더 큰 역사의 점 하나를 이룹니다.
 그 점이 때로는 그 집단의 방향을 좌우하는 큰 획을 긋게 된
 엄청난 의미를 내포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소중히 보관해 온
 한 장의 사진에 담긴 과거 한 대목 한 소절에서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 이 지점과 무관치 않을
 오묘한 모습의 기미와 힌트를 얻는 즐거움과 의미가 클 것입니다.

이수그룹의 역사가 된 추억의 사진, 그때의 미소를 소환하는 사연

이번 봄호에 새로 개설된 코너 <라떼는 말이야>는 이수그룹 내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그룹 행사에서 남겨진 사진 자료를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크고 굵직한 그룹 행사는 그룹 차원의 홍보팀이나 특별한 관리를 통해 사료적 가치를 발휘할 터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적인 스냅이나 영상 자료를 공개하며 그에 얽힌 훈훈한 스토리를 담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그룹 내 모든 이수가족들이라면 한두 점 이상은 소장하고 있을 사진과 사연을 통해 이수그룹의 과거 한 지점에 멈추어 소환된 그때 그 시절에 시선을 모으고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말이야”



이러한 유행어를 긍정적으로 차용하여 MZ 세대 사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과거 이수그룹의 면모를 사진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장으로 삼고자 신설한 코너로 임직원들의 귀한 개인 소장 사진을 공유하며 그룹 공동체의 소속감을 키워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2012 이수가족 한마음 대축제



라떼는 말이야

신입사원 축하무대가 필수였던 2012 이수가족 한마음 대축제

김정희 과장 | (주)이수 브랜드전략팀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진은 2012년 그룹 체육 대회 사진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엔 매년 사내 체육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행사 세션에는 신입사원들의 축하무대가 필수로 있었고,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저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며 셔플댄스를 열심히 추었던 기억이 나네요 ㅋㅋ. 생각해 보면 입사 동기들과 퇴근 후 다 같이 모여서 춤 연습도 하고 맥주 한잔 기울이는 재미가 참 쏠쏠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해당 미션에만 급급해 춤 연습에 매진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고 회사에서의 포지션도 달라진 지금 돌아켜보니 다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는 조금 다른 온기로 전해지는 신입사원에 대한 애정과 격려, 새내기 사원의 서먹함을 녹이는 그룹 차원에서의 배려가 각별했음을 새삼 알게 되는 사진입니다.

이제는 다들 바쁜 업무와 개인사들 때문에 예전처럼 마음 편히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응원하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믿네요
라떼는 말이야~~~ 그랬었다고... 18기 동기들이 잘 지내지?

#라떼는 #신입사원이라면 #셔플댄스폼미쳤었죠



유튜브의 바다에서 반짝반짝 유람하기

지구촌 주민들의 엄지척 세계 요리

살아있다는 것은 오감을 작동하는 일이다.

살아있어서 가능한 예술 향유는 인간을 진하게 고양시킨다.

그림·음악·조각·문학·영화·향수 각 장르마다 감각기관을 하나씩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요리는 이 모든 감각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혀의 세포에 국한한 일이 아닌 눈, 코, 귀는 물론 촉각까지 아우른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여행 욕구 작렬~ 여행 예감 벌렁~

훌쩍 떠나는 이든, 집콕 머무는 이든

두루 요긴한 다른 나라 먹거리

차려내고 보면 그럴싸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글로벌 요리에 바짝 다가간다.



깨알 잔소리 살가운 미쿡이모의 고소 바삭한 글로벌 퀴진



세계 요리를 다루는 채널 중 흔치 않게 시청각 동시 가동. 주인공 나타샤의 주방 배경 동영상으로 글로벌 환경을 눈과 귀로 실감한다.

멕시코, 튀르키예, 그리스를 포함, 그녀가 다루는 요리 범주 자체가 글로벌하다.

- Easy Shrimp Alfredo Pasta
- How to Make Stuffed Shells
- Tortilla Breakfast Wrap
- How to Make Italian Dressing

요리 동영상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 보너스로 냅킨 접는 법, 양파 써는 기발한 방법 등 가벼운 팁부터 닭 요리에 사용할 닭고기 고를 때 그런 건 안 된다는 등 이런 게 확실히 옳고 저런 게 매우 중요하다 블라블라……

나타샤의 풀깃한 수다 덕에 영어와 요리를 동시에 잡는다. 잡다하고도 요긴한 주방 고수, 요리 9단만이 전하는 잔소리가 은근 달갑고 재미있어 증독 주의.



▶▶ 한번 방문하게 되면 그녀의 주방 언저리에서 노니는 재미가 쏠쏠하면서 어느덧 매우 살갑고도 잔정 많은 친구 하나 사귄 듯.



이러폰도 ok 음악도 ok 자막으로 충분한 지구촌 레시피

YouTube Frische Rezep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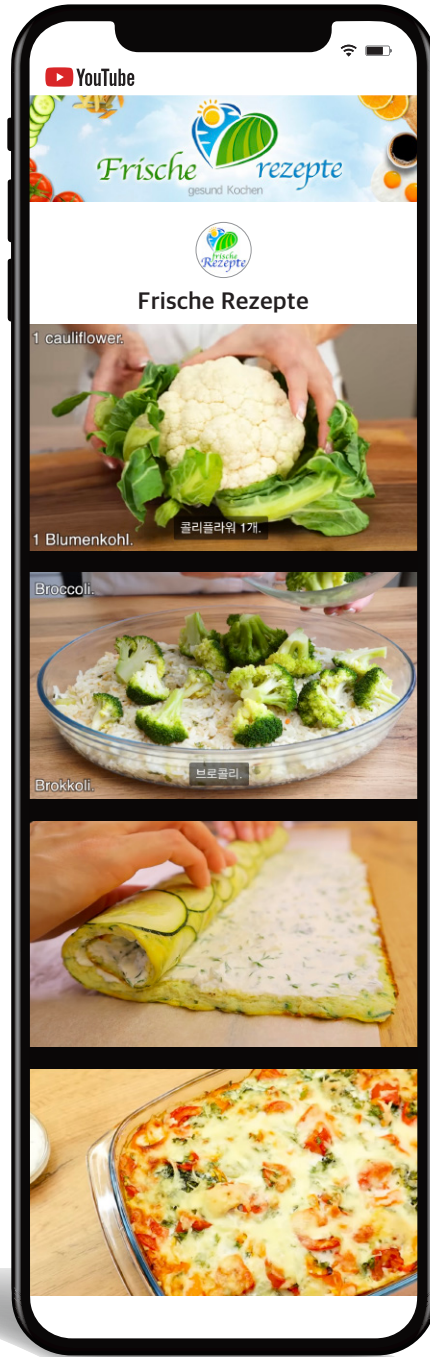
구독자 | 208만 명

서양요리 도전은 특별한 미각이 훈련되어 있거나 큰맘 먹고 시도하는 영역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유튜브의 바다에서 누리는 특혜를 누가 외면하리. 정보력이 곧 행복한 세월이다.

세계 어디든 있는 야채 -

브로콜리, 양배추, 감자, 브로콜리, 비트, 콜리플라워 등 신선한 요리 재료로 즉석에서 만든 서양 요리다.

호박 요리법, 야채 캐서롤, 저녁 아이디어, 신선한 요리법, 저녁 식사, 아침 식사, 콜리플라워 요리법, 맛있고 건강한 요리법, 건강한 식습관, 가족 요리법 등의 다양한 목록이 올라와 있다.



» 글로벌 사용자를 의식해서 혹은 배려해서 일터 오디오 코멘트 없이 한글자막만 제공되고 있다. 헤드폰을 끼고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도 어는새 요리 끝

흔한 식재료로 건강식 똑딱~~ 다양한 국적의 엄지척 댓글

YouTube Essen Koc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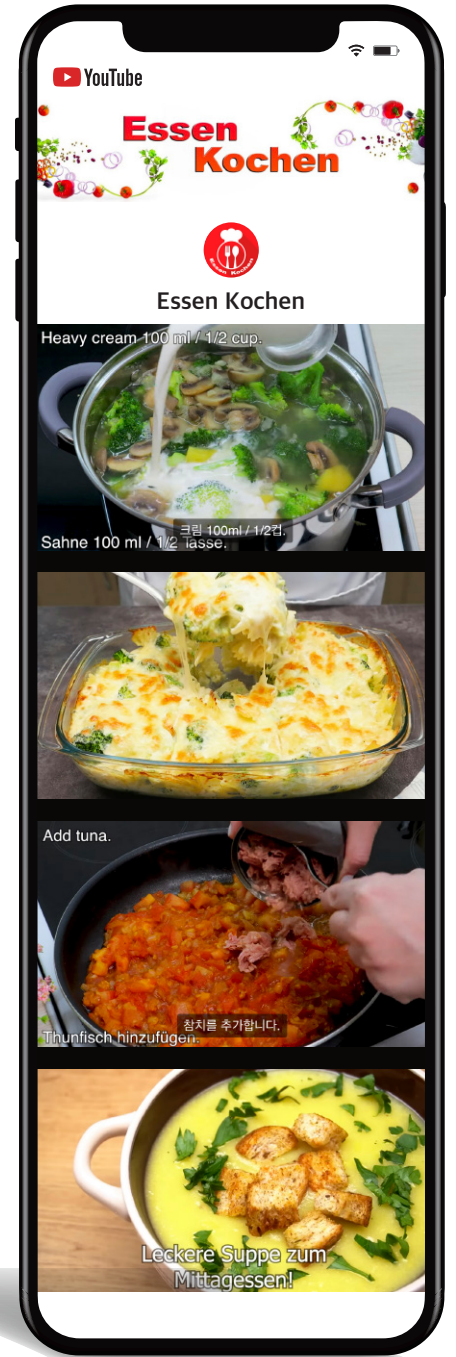
구독자 | 34.7만 명

지구촌 생활권, 지구마을 주민들의 먹거리 디테일은 그 확산 속도가 사상 초유, 역대급, 이런 단어로도 미진하다. 거기에는 유튜브의 공이 실로 지대하다!

스페인 친구가 가르쳐 준 요리...등 하부 목록 타이틀로 보아 독일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글로벌 관심사인 다이어트 주제도 빈도 있게 다룬다. 60대 할머니의 콜리플라워 레시피 등에서 역시 식재료는 국경이 없음을 실감한다. 살 빠지게 하는 브로콜리 수프, 한 달에 10kg 빠지게 한 야채수프, 브로콜리와 감자요리 등 흔한 식재료인 통조림 참치 등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다양한 야채로 제안하는 건강식이다.



» 다양한 국적의 엄지척 댓글로 실시간 체감 글로벌 요리 채널 댓글 중에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슬쩍 제안하는 이도 있어 남의 나라말이긴 해도 쌍방 소통을 엿보는 재미가 나름 쏠쏠



맛깔진 입담은 제3의 양념 한국청년이 전하는 세계의 육식 요리

▶ 육식맨 YOOXICMAN

구독자 | 99만 명

인간은 잡식성 동물이다. 지구별 주민 가운데 특별한 지역과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육식과 채식을 겸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세계의 육식 요리라는 타이틀이 먹어준다. 고기 요리가 거기서 거기지...?No!!! 육식 패러다임이 전면 수정될 듯.

이 채널의 운영자 육식맨은 우리나라 청년으로 세계 각국의 육류 요리를 집요하게 뒤지고 연구해서 전한다. 무엇보다도 주인공 자신이 육식 요리를 진정 신명 나서 마주한다. 특유의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에 연동한 맛깔진 입담은 보너스다. 고기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노래를 달고 사는 육식맨이라면 지금까지 익숙한 자신만의 육류 요리 저 너머 신세계를 열어줄 반가운 채널이겠다.



▶▶ 재생목록 중 영화 <줄리 앤 줄리아>에서 등장했던 프랑스 요리 비프 브리뉴(브리고뉴식 쇠고기찜)도 선보여 색다른 육식 향유의 폭을 넓힐 의욕이 샘솟을 듯



조용한 무드로 유럽 요리 해볼까? 난이도 만만, 비주얼 황홀~~

▶ Little Strawberry Kitchen

구독자 | 42.6만 명

주인장의 국적은 아제르바이잔으로 밝혀 두고 있으며 허니갈릭치킨 재료를 위해서 별통에서 꿀을 채취하는 것부터 요리 영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전원생활을 하는 이로 짐작된다. 일부 영상은 야외에서 하는 요리로 정원이나 텃밭이 배경인 점도 흥미를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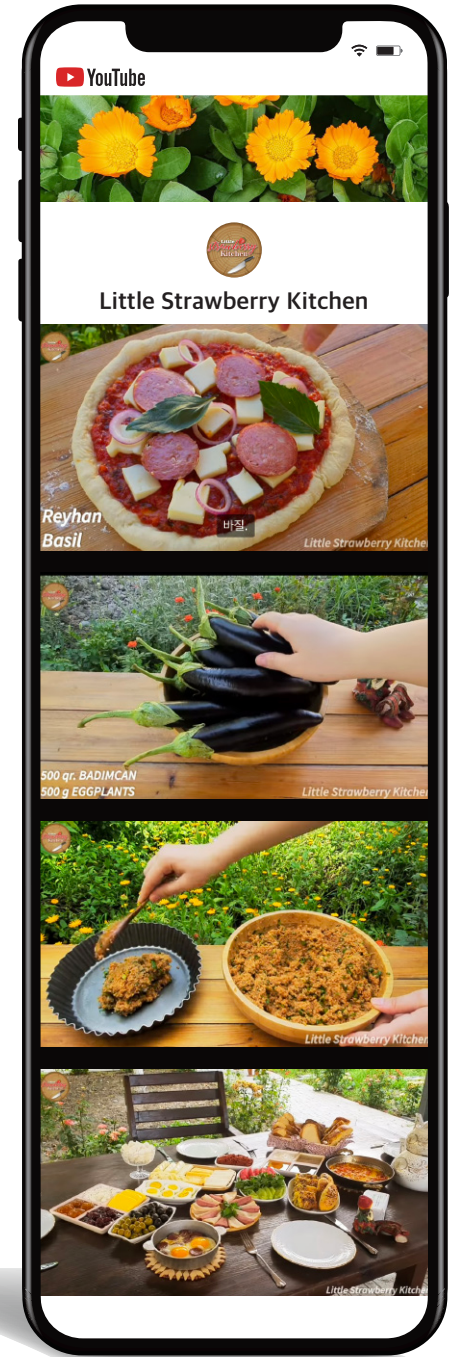
레시피에 등장하는 재료에서 바질 등 낯선 향신료가 더러 있지만 고스란히 준비해서 이국적인 맛을 느껴보는 것도 좋고 건너뛰고 우리의 요리 재료로 바꾸어 사용해도 무방하다.

각종 가지 요리를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프랑스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요리로 꼽히는 재료 접근성 좋은 튀르키예 요리도 다수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쓰이는 양고기는 쇠고기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 음성 정보가 일체 없어 적막하나 눈요기가 그럴싸하다. 한글자막이 안내하는 대로 요리 진행을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지금 이곳의 주방에서도 똑딱 완성 가능.



5월, 6월은 꽃게 철이다.

상식적으로야 꽃게는 제철이랄 게 없이 사계절 바닷속에 웅크리고 있지만 등딱지를 찍 가르면 꽃보다 화사한 주홍빛 알 뭉치가 꼬약 들어찬 이 무렵 5월 전후 암게의 생명력은 색·성·향·미·촉 안전체로 뇌세포에 아름다운 테러를 가한다.

간장으로 간만 맞춘 순도 높은 존재감 그대로를 식도에 맞아들이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 주와 하나 되는 고양감이 상승한다.

꽃보다 아름다운 꽃게 대접 차, 격 있는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격 있는 먹거리란 이런 것이리라...



꽃게와 간장게장

스토리쉐프가 차려내는 식탁
꽃보다 반갑고 간장보다 짭한 맛



그대
이름은 ...

꽃게 관련
이말 저말

꽃처럼 생겼다 해서 꽃게가 아니라 꼬챙이라는 뜻의 꽃(串) 게가 변형된 것. 다른 게들과 달리 등딱지 양 모서리가 꼬챙 이처럼 날카롭게 튀어나와 붙은 이름이다.

간장게장이 맛있다고 보니 꽃게 입장에서 웃픈 속어도 있다. 무능한 직원 혹은 상사를 이르는 은어다. 간장게장 → 밥도둑 → 월급 축내는 이 - 이런 우스개가 돌 만큼 흰밥과 어울리는 간장게장은 밥을 하염없이 부른다.

한편 극단적인 흥분이나 감정상 위기에 게거품 문다고 한다. 물 밖에 나온 게를 보면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는데 이는 게의 호흡법 때문에 보이는 사투 현상이다. 물을 빨아들여 아기미를 거친 수중 산소를 취하는 게가 물이 없을 때 입가 주변의 수분이라도 빨아들이려고 노력해서 거품을 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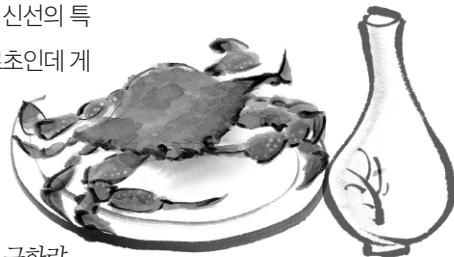
국내에선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며 연평도 꽃게가 유명하다. 서해안의 당진, 서산, 태안, 홍성에서는 게를 ‘그이’라고 부르며 보령, 서천, 군산에서는 ‘기’라고 부른다. 희한하게 정반대 편에 있는 동해안의 울진, 영덕 등지의 사투리는 ‘기’ 내지 ‘괴’라고 한다.

꽃게는 산란기인 6월 중순~8월 말과 흑한기인 1월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출하된다. 서해 연평도 덕적도 백령도 태안반도 지역이 주요 산지로, 5월에 가장 많이 잡힌다. 봄에는 알이 가득 찬 암게를, 가을에는 살이 많은 수게를 먹으면 좋다. 꽃게를 뒤집어 배달이가 뾰족한 종추형이면 수게고, 둥근 삼각형 모양이면 암게다. 보름에는 먹지도 않고 활동을 중단 살이 빠져 그믐에 잡은 게 더 맛있다.

신선이 되는 약을 굳이 찾으리?

게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과묵한 고려 문신 이규보의 게장 찬사는 수궁이 된다. 게장을 먹으면 굳이 신선이 되는 약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 신선의 특징은 죽지 않고 장수하는 것이다. 그런 신선이 되는 약이 바로 불로초인데 게장을 그 반열에 덩그러니 올려놓은 것이다. 노랑게 익은 꽃게장을 먹으며 곁들인 술 한 잔이 바로 신선의 세계임을 노래한 것이다.

아이 불러 새 독을 열어보니 / 하얀 거품 솟으며 향기를 풍긴다
 게는 금빛 액체, 술은 봉래주(蓬萊酒) / 어이하여 약 먹고 신선을 구하라



기원전 7세기 전후 주나라 때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바쳤다는 맛있는 음식으로 청주의 해서(게장)를 꼽았다. 한나라 때 사전인 <석명>에서는 게를 잡아서 장을 담그면 뼈와 살이 녹아서 짓이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에도 고수를 넣는다는 점만 빼면 한국의 간장게장과 비슷한 간장게장이 있다. 우리처럼 전국적 애호는 아니고 중원 중심으로 먹었으나 원나라 때에 생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푸젠성에서 주로 먹는 향토음식이다.

우리나라 게장은 1600년 경으로 게장 관련 기록은 「규합총서」, 「주방문」, 「시의전서」 등이 있다. 절임의 주재료에 따라 술이면 ‘주해법’, 식초면 ‘추장해법’, 소금이면 ‘염탕해법’ 등의 조리법이 있었고 ‘간장절임’도 이 중 하나였다.

꽃게에 쇠고기를 먹인 다음 간장게장을 담으면 맛있다는 속설이 있었다. 산림경제 등 간장게장 만드는 법이 적힌 문헌에서 쇠고기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쇠고기를 게에게 먹이지 않고 간장을 달일 때 쇠고기를 넣었다. 민물 참게는 실제로 이물질 등을 토해내는 해감 과정에 살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고기를 먹여가며 일주일 정도 관리하는 방식이 예부터 전해졌다. (그냥 먹기도 귀한 쇠고기를 맛의 지존인 꽃게에게 먹인 후 담은 장이라니 가히 미각호사의 슈퍼따따블급!)



게장 관련 조선 흑역사

게장은 임금도 즐겨 먹던 음식으로 간장게장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있다. 영조의 선왕이자 형님인 경종이 게장을 무척 좋아했다. 왕에 오른 지 4년째인 1724년에 승하했는데 죽기 전날에도 게장으로 수리를 들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사망원인이 기록되어 있다.

어제 임금이 게장과 생강을 드셨는데 밤새도록 가슴과 배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팠다. 게와 감을 함께 먹는 것은 의사가 꺼리는 것이다.

경종이 게장을 먹다가 체하여 승하했다지만 당시 세간에는 독살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독살설의 피의자는 당시 동궁이면서 이복동생인 영조였다.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태어난 경종의 짧은 재임 기간 동안 경종 지지파 소론과 영조 지지파 노론이 임금과 동궁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당파싸움이 있었다. 임금의 자리에 오른 영조는 당쟁을 없애고자 탕평책을 펴는데 영조를 반대했던 소론 일부와 급진 남인 세력이 자신을 제거하려 들자 소론과 남인을 대대적으로 숙청한다. 이때 빌미가 된 것이 바로 게장이다. 동궁전에 보낸 게장 때문에 경종이 사망했다는 소문의 출처가 된 소론파 이천해를 위시하여 임금 모함 역적죄를 물어 소론 일파를 제거한 것이다. 영조실록에 등장한 관련 자료다.

역적 신치윤의 게장 관련 심문 기록을 보면 가슴이 섬뜩하고 뼈가 시려서 차마 들을 수가 없다. 경종에게 진어한 게장은 동궁전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수랏간에서 올린 것이다.



조선 실학자 이덕무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적은 <사소절>에서 선비들이 게장 먹을 때 각별히 조심할 것을 언급하며 게 등딱지에 밥을 비벼 먹지 말라는 당부도 강조했다. 이유는? 단지 보기 흉하다는 것. 체면을 중시한 조선시대 선비들조차 모양 빠지건 말건 게 등딱지에 밥을 비벼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장안 간장게장 맛집

미각에 대한 최고의 대접으로 찾는 한중일 3국의 맛투어에서 일본 관광객은 오로지 꽃게장을 맛보러 한국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꽃게 사랑이 대단한데 이리다 꽃게 멸종? 가슴이 콩 내려앉는다.



한춘상 일미간장게장

장안동 먹자골목에서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되어 일본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다. 대표 메뉴 '간장게장'은 12가지 한방 약재를 넣고 달인 특제 간장으로 게장을 담가 손님상에 올린다.

📍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4길 7 📞 02-2242-4338



진미식당 (미술령, 수요미식회 출연)

서울 간장게장 3대 맛집! 더 이상의 설명은 굳더더기.

전화예약이 하늘 별 따기,

국내 유명 인사를 포함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간장을 이용하여 깊은 맛을 살려 자극적이지 않고 삼삼하면서도 은은하게 단맛이 돌아 격조 있는 미식이다.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6-6 📞 02-3211-4468



게방식당

짜지 않고 감칠맛 높은 간장게장과 고추장 양념으로 콩나물, 미나리, 꽃게를 버무려 비주얼을 고려한 꽃게 범벅도 있다. 게+방씨 성 대표의 성을 합쳐 만든 상호다.

25년간 게장 전문점을 운영해온 부모님과 의 신구 개념 합작답게 젊은 감상의 퓨전 분위기 게장이 독창적이다. 세트에는 기본적으로 밥과 국, 기본 반찬 제공되고 테이크아웃도 가능.

📍 서울 강남구 선릉로 131길 17 📞 010-8479-1107

이수인의 심폐 확장 이슈

인간과 AI, 슬기로운 동거 향기 세계와 AI 기술



인공지능 AI는
기존 인간의 뇌가 관장하던 지식 영역은 물론
예술 창작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고 있다.
이는 누적된 세상 모든 방대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무한 증식이 가능한 AI 기술에 있다.
이번호에서는 AI로 접근하는 향기의 세계를 전한다.
저마다 고유한 향기를 지닌 꽃들의 비밀을 밝혀낸 기초화학을 토대로
AI가 분석하는 향기 세계가 산업에 응용되는 현주소와
미래를 전망해 본다.

글_ 이재향(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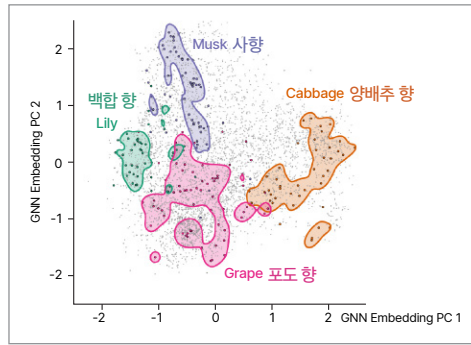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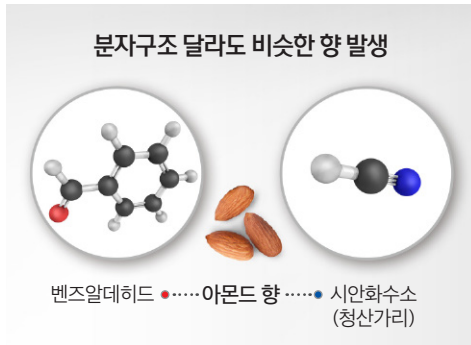
강렬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향기 마케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소비에 개입하고 있다.

후각, 생존을 위한 정찰대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먹을 것을 위해서 여
행했던 인류 조상들에게 냄새는 필수적이었다. 인간
은 냄새의 안내를 받는 유목민이 되어 먹잇감을 찾고
사냥하고 짝을 찾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다. 그것은 한없이 귀중한 기능이었고 덕분에 우
리는 독성물질이 입을 통해 우리 몸의 섬세한 닫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후각은 인간의 첫 번째 감각이었고 생명 유지에 대단
히 유용했으므로 나중에 신경 줄 위에 있던 후각 조
직의 작은 덩어리가 뇌로 발전했다. 인간의 두뇌는
원래 후각의 즐거움에서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냄새를
맡기 때문에 생각도 하는 것이다.

- 다이언 애커먼의 <감각의 박물학> 후각편 일부 발췌

살아있음을 정의하는 카테고리는 순환계, 호흡계 등
다양하다. 신경계 측면에선 색·성·향·미·촉을 지각
하는 것이다. 감각은 시공을 이어주고 관계를, 세계
를 다리 놓는 명징한 생명 현상이다. 그중 후각 영역
즉, 냄새의 세계가 인간 삶에 있어서 밀도 있게 간여
해 왔음은 많은 자료가 밝혀 놓았다.
병실에서 약품 냄새에 대한 기억, 특정 비누 향에 대
한 아름다운 추억,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그리움, 어
떤 공간에 대한 특별한 호감, 심지어 두려움과 거부
감까지 향기와 결부되어 오랜 시간 후에도 당시 상황
을 소환한다. 그만큼 한 개인의 행 불행, 그리고 생존
자체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이런 요소를 기반
으로 한 향기 마케팅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우리
의 행복을 위한 소비에 개입하고 있다.



(출처: 구글리서치 브레인팀 논문 / Arxiv)

화학으로 풀어내는 향기와 AI

인공지능(人工知能 -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이 만들어 낸 지적 능력이다. 지금까지 지능은 인간이 책이나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을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지적 능력을 뜻했지만 이것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향기란 사람의 후각세포가 특정 분자를 인지하면서 느껴지는 감각 대상이다. 그러나 슈퍼 속도로 내달리는 과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기에 대하여만큼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아몬드 향이 나서 식품에도 소량 사용되는 벤즈알데히드라는 분자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향을 내면서도 분자구조가 전혀 다른 것이 있다. 바로 청산가리로도 하는 맹독성 물질, 시안화수소이다.

이렇듯 분자의 모습만으로 향기를 유추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구글 연구진은 AI 기술을 이용하여 분자구조만으로 어떤 향기가 느껴질지 예측하는데 성공했다. 이때까지 분자구조는 달라도 비슷한 향이 날 수 있다는 것까지 밝혀낸 바 있지만 분자 구조 자체만으로 향기를 예측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로 유의미한 일이다.

인간의 후각을 능가한 디테일, AI

구글 연구진은 5천 개의 분자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향기를 정리한 데이터를 완성했다. 이는 AI 학습 기법 중 최근 각광받는 GNN(Graph Neural Network : 기계 학습의 그래프 구조에서 사용하는 신경망)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분자구조, 도로 연결망 등과 같이 여러 갈래의 연결선이 얽힌 데이터를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하고 분석하는데 특화된 것이다.

GNN을 이용한 시가 복잡한 분자구조와 향기를 학습한 뒤 비슷한 향기를 만드는 분자들을 모은 향기 지도를 도출해냈다.

이 지도에서 백합 향, 포도 향, 양배추 향과 같은 향을 내는 분자들이 점으로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하면 새로운 분자를 시에 입력했을 때 시는 이 분자가 어떤 향기에 가까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향기 지도를 만들어 낸 시가 정말로 새로운 분자의 향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실험을 준비했다. 먼저 전문가들도 접해 보지 않았을 만큼 매우 생소한 분자를 준비한 후 후각, 미각 분야의 독립연구기관 Monell Center 소속 패널 15명을 초빙하여 달콤한 향, 견과류 향 등 55가



(내용 출처: SERICEO)

지 향을 묘사하는 분자 항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패널들의 응답에서 이들 향이 달콤하고 과일, 바닐라, 꽃과 같은 향기를 짚어냈다. 한편, 시를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분자 구조를 분석해 인간이 어떤 향을 느낄 것인지 예측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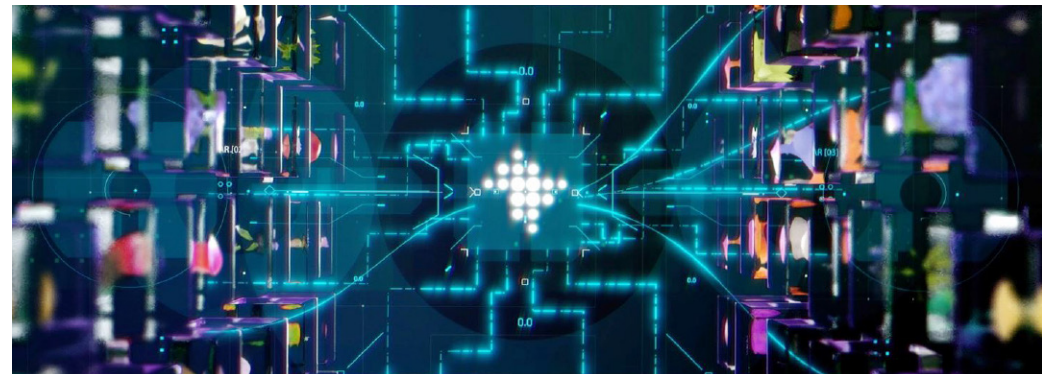
결과는 놀랍게도 시가 참석 패널과 유사한 답을 제시함으로써 그 성능을 입증했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은 향기를 맡는 능력이 사람마다, 향기마다 달라서 인간의 분석에는 개인 편차가 컸다는 사실이다. 결론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면서도 일정한 성능으로 향기를 예측한 시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AI를 활용한 향기 산업 사례

향기는 다른 감각과 달리 분석도 까다롭고 예측 또는 재현이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식품, 화장품 등 인간이 사용하는 제품은 물론 마케팅, 인테리어 등 다양한 산업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AI 기술이 향기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향기를 더욱 빠르게 개발하여 제품화한 사례를 남겼다.

2019년 브라질의 최대 화장품 회사 O Boticario가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남녀 향수(Egeo ON YOU / Egeo ON ME)를 출시했다.

이 향수는 미국 IBM과 독일 Symrise가 함께 필리라



미국 IBM과 독일 Symrise이 만든 AI 조향사 '필리라(Philyra)'는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향기 조합을 생성한다.

(출처: symrise.com)



브라질의 오보치카리오(O Boticario)는 '필리라'(Philyra)라는 AI 조향사를 통해 향수(Egeo On You / Egeo On Me)를 개발했다.



(내용 출처: SERICEO)

(Philyra: 그리스 신화에서 향수를 관장하는 신)라는 AI 조향사를 통해 개발한 제품이다. 보통 전문 조향사가 10년 넘게 연구, 개발을 거쳐 향을 만들어내는데 비해 방대한 정보를 토대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생각지도 못한 원료를 섞어서 새로운 향수를 만든 것이다. 심라이즈 연구원 데이빗 에이펠은 패션지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AI 조향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녀는 대단한 파트너예요. 지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해 나가는 데 방향을 정해주죠. 그녀가 수천 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철저히 분석해 유니크한 제조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접근 방법에 매우 놀랐어요.” IBM의 수석연구원 Richard Goodwin은 논문을 통해 AI가 수행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 좋은 향을

내는 향수 제조는 물론 향기 보관 기간, 피부 자극 정도, 성별에 따른 적합성 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조향사들이 어떤 노트를 원하는지 타깃의 성향이 어떤지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제조법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향수와 향이 겹치지 않는 유니크한 향수의 제조법까지 제시하도록 고안되었다고 한다. 인간의 후각과 감성을 겨냥한 고차원의 향기 산업에 AI의 진입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이 대중에게 어떻게 어필할지 그 결과로 인해 인간의 영역이 인공지능으로 완벽히 대체될지 여부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과거의 향기, AI가 복원 가능?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유럽의 16세기부터 20세기 초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과거의 전염병 퇴치약 냄새에서부터 담배 향기까지, 과거의 향기를 복원하기 위해 영국과 유럽의 과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실제 팀을 이루어 Odeuroap라는 이름으로 280만 유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조사원들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헤리티지 사이언스(Heritage Science), 그리고 센서리 히스토리(Sensory History) 테크닉을 이용하여 유럽의 과거 후각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내고 문서화한다. 여기서 AI는 7개의 다른 언어의 과거 향기 관련 문서, 이미지와 그림들을 과학자들을 위해 검토하고 정리해 준다. 이런 정보들은 <Online

encyclopedia of European smells>에 저장되고 자료들은 화학자와 조향사들에게 전달되어 현대 버전으로 재탄생된 과거의 향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많은 분야에서 구현되고 있다.

AI가 기여할 향기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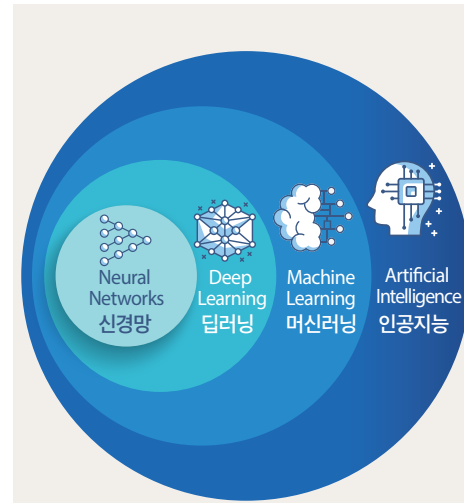
인공 향기를 만들어 산업에 응용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현재 산업분야에서 제품으로 활용되는 향료는 약 5천 개 정도로 식음료, 향수, 화장품 등에 쓰이고 있다. 구글 AI는 이보다 100배인 50만 개의 향기 분자를 발굴, 각각의 분자가 가지는 향기를 세밀하게 구분해 놓았다. 이로써 기존에 주로 쓰이던 익숙한 향료 대신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향기 물질을



(내용 출처: SERICEO)

도출, 신제품 개발에 활용할 가능성이 부쩍 커졌다. 특히 어떤 분자구조의 향이 인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그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대량생산이 용이한 새로운 향료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기 산업은 인류의 보건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글은 모기가 싫어하는 향기 연구 결과를 AI에 추가로 학습시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향을 찾았다고 한다. 현재 모기피부에 사용되는 DEET에 맞먹는 10여 개의 향기 분자를 발견한 것이다. 이 향을 사람의 피부에 적용한 결과 해충이나 기생충을 없애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도를 높이면 진드기 역시 쫓아낼 수 있음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구글 연구진은 AI를 이용해 더 저렴하고 안전

하면서도 지속시간이 긴 해충기피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IBM의 왓슨 연구소에서 시도하는 일련의 연구는 AI를 이용하여 향수 제조 뿐만 아니라 향기 산업의 저변을 확장할 또 다른 세계를 열고 있다. 음향 분야에서 백색소음이라는 개념을 소음 차단 해법으로 응용되는 것에서 착안해 백색향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인간이 동시에 감지 가능한 종류를 능가하는 30종 이상의 향을 모두 섞어 조제한 백색향은 주변 나쁜 냄새를 모두 덮어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김치, 양파 두리안, 등의 강한 향에 대한 해법 등 탈취 산업 분야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AI

머신러닝과 그 구성요소인 딥러닝, 신경망은 모두 AI의 하위 집합으로, AI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첫 번째 하위 집합은 머신러닝이며, 그 안에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 안에는 신경망이 있다. AI는 의사결정과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고 처리한다.

AI는 컴퓨터 기반 시스템의 두뇌이자 머신의 지능이다. 시스템은 AI 및 기타 AI 지원 앱 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뿐 아니라, 추가 프로그래밍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사용해 작업을 실행, 예측, 학습하며 지능화한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해당 인텔리전스와 데이터로 AI에 목표 지향적인 과제를 제공한다.

이수그룹과 AI, 궁극은 인류의 행복

석유화학 제품에서 정밀화학 제품으로 영역을 넓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해 온 이수화학은 첨단 연구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다. 50년 역사를 넘어 100년을 향한 비전으로 자체 내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 AI 접목도 충분히 가능하다. 연구 및 상품개발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일도 품어 볼 만한 꿈이 아닐까?

그리스 신화 중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여인상을 조각한 작품이 너무도 아름다워 그 조각품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 이를 참으로 딱하게 여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조각상 애인을 진짜 사람으로 변화게 해 마침내 둘은 결혼하게 되었다. 세상사 당초 취지와 이렇게 빛나가 당혹스럽고 딱한 상황이 왜 없으랴. 인간이 창조해낸 시도 그 역량이 도를 넘어 인간과 사랑에 빠지거나 인간을 능가한 힘으로 조종, 지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리라...

AI가 아직 범접 불가한 인간 고유 영역은 바로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다. 인간과 AI, 슬기로운 동거 조화로운 공존으로 지구에 깃든 것이라면 어떤 생명도 파괴적 욕망에 희생되지 않도록 전인류 차원의 각성을 유지해야 할 일이다.

참고 자료

- 강의 요약 - 분자구조로 향기를 예측한다고? (SERICEO <이슈 브리핑>삼성글로벌리서치 조우성 수석연구원)
- 인공지능(AI)과 향기 산업에 대한 이야기 | 향수잡담 #2 (YouTube ssense fragrance)
- 인공지능이 만든 향수? 향료 산업까지 위협하는 인공지능! (YouTube 캘리사는화학쟁이)
- Odeuropa rediscovers European scents (YouTube)
- 옛날 향기를 인공지능(AI)이 복원 가능할까요? (post.naver.com)

예술을 통한 일상의 '새로 보기'를 제안하는
이수그룹의 문화 예술 공간 '스페이스 이수'에서는
2023년 3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이진한 개인전 II <Hi, Bye 안녕, 안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짧은 시간 동안 피고 지는 벚꽃을
모티브로 출발해서 다채로운 봄의 풍경들로
확장되는 대형 신작들을 소개한다.

떠날 때를 바로 알아 떠나는
뒷모습의 아름다움...

이진한 개인전 II <Hi, Bye 안녕, 안녕>

봄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봄과 헤어지는 순간

이진한 작가는 사계절 모두를 즐겨 그려왔지만, 그
중에서도 봄은 사랑을 뜻한다. 자신의 사전에서 "봄
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석양 아래 벚꽃이 지고 흩날
리는 봄과 헤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봄
이 저물어가는 시간에 주목한다.

<Falling 봄의 끝>(2023)은 이름 모를 꽃과 식물들
이 서로 경쟁하듯이 뻗어 나가고 상승하는 가운데
점점이 흩어져 떨어져 내리는 벚꽃 잎들을 통해 봄
날이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진한(b. 1982)



이진한, <Falling 봄의 끝> 2023, oil on linen, 200×150 cm



비현실적이나 따뜻하고, 몽환적이나 친숙한

<Moonbow 달무지개> (2023)와 <Sun and Moon 해와 달> (2023)은 이승우의 소설 「식물들의 사생활」(2000)에서 받은 영감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이다.

<Moonbow>가 소설에 나오는 꿈의 이야기, 즉 함께할 수 없던 연인들이 나무로 변신하여 재회하는 순간을 그렸다면, <Sun and Moon>에는 해와 달이 동시에 떠오른 불가능한 순간을 더해서 꿈꾸는 듯한 몽환적 느낌이 가중된다.

하루 두 차례의 순간에만 스치듯 지나칠 수밖에 없는 해와 달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회화의 힘을 통해 한 화폭 안에서 조우하게 된다.



(위) <Moonbow 달무지개> 2023, oil on linen, 200×180 cm
(아래) <Sun and Moon 해와 달> 2023, oil on linen, 200×180 cm

<Lovers in the Moonlight 달빛 아래 두 연인> (2023)은 달빛 아래서 은밀히 만나는 연인들의 모습을 식물로 의인화한 작품이다. 꽃과 나무들의 노란색 그림자 뒤로 숨어든 연인들은 분간하기 어렵지만 떼어낼 수없이 하나로 뒤엉킨 채 입맞춤하는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Leaning 너에게로> (2023)는 연인을 향해 기대는 몸과 마음처럼 태양을 향해 한껏 가지들을 기울인 두 벚나무를 묘사한다. 하지만, 태양을 향해 몸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점점 더 만개해 가는 벚꽃 잎들은 이내 떨어질 채비를 마친다.



(위) <Lovers in the Moonlight 달빛 아래 두 연인> 2023, oil on linen, 173×152 cm
(아래) <Leaning 너에게로> 2023, oil on linen, 152×173 cm



<Two Lovers Walking in the Spring 봄을 걷는 두 연인> 2023, oil on linen, 220x160cm

<Two Lovers Walking in the Spring 봄을 걷는 두 연인>(2023)은 벚꽃 아래를 걷는 연인들의 맨발을 포착한다. 연인들은 벚나무 아래서 서로의 맨발을 살포시 겹쳐보지만, 곧 봄이 지나가듯 이 행복도 사라질 것을 예감한다. 벚꽃이 절정으로 만개한 순간에도 그것이 떨어질 필연적인 귀결을 떠올리는 작가는, '하이'와 '바이,' 만남과 이별, 밤과 낮, 해와 달, 꿈과 현실이 만나는 그림을 그릴 결심을 한다.

불가능이 없는 세계, 초현실적 꿈의 활성화

스페이스 이수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진한의 신작들은 봄날의 벚꽃에서 출발해서 시공을 알 수 없는 초현실적 세계 속에서 한없이 증식하는 '상상된 식물들의 세계'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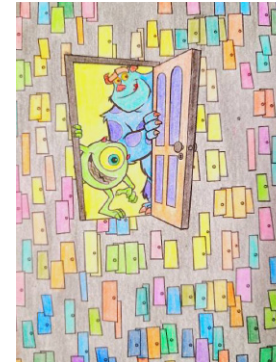
8년 전 런던의 어느 골목에서 “하이, 바이” 하며 스쳐 지나간 친구의 짧은 인사말에서 시작된 작가의 단상은 끝을 모른 채 뻗어 나가는 나무처럼 그만의 무한한 꿈의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이진한에게 “회화는 스스로의 경험과 사고와 감정을 온전히 소유하는, 어찌 보면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려는 행위”다. 가장 일상적이고 사적인 순간에서 비롯된 이진한의 작업은 초현실적 꿈의 세계를 활성화함으로써 불가능한 꿈을 이루려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

벚꽃이 피는 계절에 시작되는 이번 전시와 함께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평안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로에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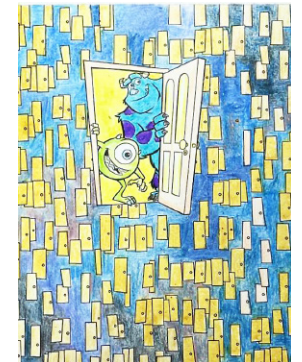
이수가족이 정성껏 채색해 주신 컬러링 응모작을 소개합니다.
작은 행복, 컬러링 테라피 코너에 앞으로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김희태 사원
(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생산3파트)



노명훈 차장
(이수화학 R&D1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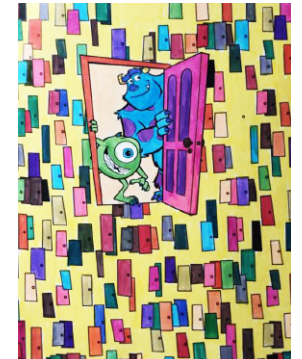
서윤덕 차장
(이수페타시스 설계팀 NPI파트)



유태하 기선
(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생산1파트)



이재영 기선
(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검사파트)



전재환 기선
(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생산1파트)

이수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 방법



컬러링을 한다



인증샷을 찍는다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카카오톡 ID : creativekeym / 이메일 : hjkim1@isu.co.kr

2023년 신년호 당첨자 (※가나다순)

김희태 사원(이수페타시스 생산2팀 생산3파트)

노명훈 차장(이수화학 R&D1팀)

서윤덕 차장(이수페타시스 설계팀 NPI파트)

유태하 기선(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생산1파트)

이재영 기선(이수페타시스 품질관리팀 검사파트)

전재환 기선(이수페타시스 생산1팀 생산1파트)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름호 원고 마감은 6월 15일입니다.

이수의 혁신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시대를 바꾸는 혁신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도록
미래 핵심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내일의 기술,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NEXT IS U

